

오우미 풍토기의 언덕「近江風土記の丘」에 있는 유적의 안내

● 아즈치 성터 (국가특별사적)



아즈치 성은 오다 노부나가가 덴쇼4년(1576)에 세운 성입니다. 시가현교육위원회가 헤이세이 원년(1989)부터 20년에 걸쳐 성터의 발굴 조사와 정비를 실시해, 성문 앞 큰길(大手道), 돌담 등을 축성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 간논지 성터 (국가사적)



간논지 성은, 가마쿠라 시대·무로마치 시대에 오우미 국(近江国)의 수호를 맡았던 사사키 룩카쿠(佐々木六角) 일족이 살던 성이었습니다. 고도 432m의 키누가사야마(織山) 위에 세워진 대규모의 성입니다. 중심 부분인 혼마루(本丸) 나 히라이마루(平井丸)라고 불리는 지점에는, 돌담 등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 효탄야마 고분 (국가사적)



효탄야마 고분은, 4세기에 키누가사야마 서쪽 기슭의 작은 산등성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전방후원형 고분입니다. 전체 길이는 136m이고, 시가현에서 가장 큰 고분입니다. 꼭대기에는 수혈식(竪穴式) 석실이 3기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는 청동 거울이나 철제 무기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 다이카노코미나미 유적 (국가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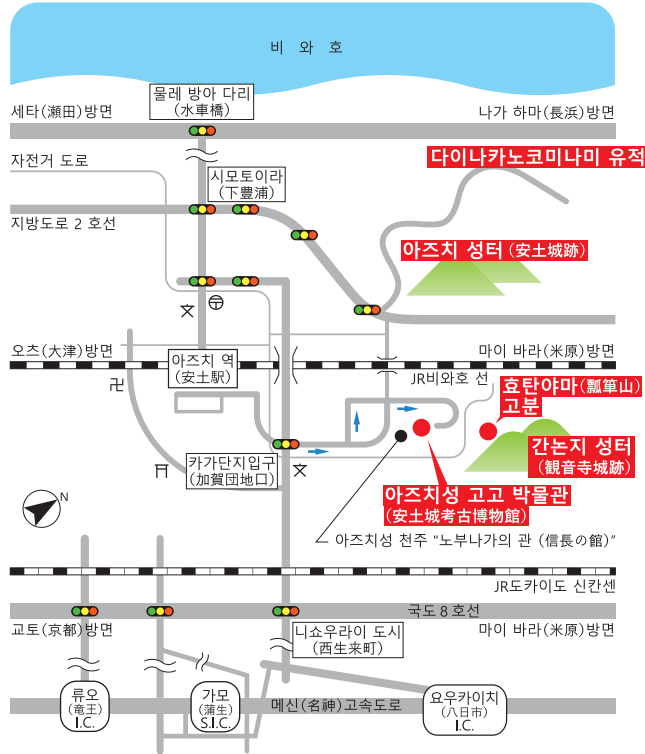


다이카노코(大湖)를 간척하는 공사 도중 발견된 야요이시대의 농경 군락의 유적입니다. 유적에서는 논이나 수로의 흔적 외에도, 경작에 사용된 갖가지 목재 농기구 등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이용안내

입장료는 전람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내관 시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접해있는 노부나가의 관「信長の館」도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도 있습니다.

초·중학생, 장애인 및 시가현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의 손님은 무료입니다. (신분증 지참) 단, 특별전은, 초·중학생 및 시가현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의 분들도 유료입니다.



- JR비와호 선「아즈치 역」에서 도보 25분
- JR비와호 선「아즈치 역」에서 자전거 렌트 10분
- 평일은「아즈치 역 남쪽 광장」에서 버스로 14분 (하루에 4편)
- 메신(名神)고속도로「가모(蒲生)S.I.C.」에서 자동차로 25분
- 메신 고속도로「류오(竜王)I.C.」또는「요우카이치(八日市)I.C.」에서 자동차로 30분
- 국도8호선 니쇼우라이(西生来)교차점을 경유해, 카가단지입구(加賀団地口) 교차점에서 우회전

발행 : 시가현 박물관 활성화 추진위원회
편집 : 시가현립 아즈치성 고고박물관

TEL. 0748-46-2424 FAX. 0748-46-6140
URL <http://www.azuchi-museum.or.jp>
e-mail gakugei@azuchi-museum.or.jp

 平成29年度 文化庁 地域の核となる美術館・歴史博物館支援事業
Support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in the fiscal 2017

시가현립 아즈치성 고고박물관

아즈치 성 고고박물관은, 오우미 풍토기의 언덕「近江風土記の丘」의 중추시설로서 헤이세이4년(1992)에 개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즈치 성터(安土城跡), 간논지 성터(観音寺城跡), 효탄야마 고분(瓢箪山古墳), 다이카노코미나미 유적(大中の湖南遺跡)이라는 4개의 국가지정사적의 소개와 함께, 지역에 전해지는 여러 문화재의 전시를 통해, 시가현의 역사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시가현 박물관 활성화 추진위원회

제 1 상설전시실

제 1 상설전시실에서는, 다이카나코코미나미유적과 효탄야마고분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최대의 호수인 비와호(琵琶湖)를 중심으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에 축복받은 시가현(오우미국, 近江国)은, 일본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0년전의 죠포시대(繩文時代)의 조개 더미의 출토품에서 시작해, 다이카나코코난 유적에서 출토된 목제 농기구나 야스시(野洲市) 오오이와야마(大岩山) 유적에서 출토된 동탁 등의 야요이시대(弥生時代, 기원전800~서기250년)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오이와야마(大岩山) 유적 출토 동탁



신가이(新開) 고분 출토 철제 투구와 갑옷



효탄야마(瓢箪山) 고분의 수혈식 석실 복원 모형 (실물 크기)

제 2 상설전시실

제 2 상설전시실에서는 간논지 성터와 아즈치 성터를 중심으로, 일본의 성곽의 역사와 아즈치 성을 축조한 오다 노부나가(1534~1582)에 관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싸우기 위한 요새로서의 성곽은 전국시대(15~16세기)에 크게 발전해 시가현에서는 간논지 성이나 오다니 성(小谷城) 등의 대규모의 성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즈치 성에 이르러서, 기와, 돌담, 초석 등 고층의 천수(天守)를 갖춘 근세 성곽의 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중세 성곽인 간논지 성터와 성주였던 사사키 룩카쿠시(佐々木六角氏)의 역사, 아즈치 성터의 발굴조사성과와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에 대해, 성곽의 모형이나 출토 자료, 고문서 등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발굴 조사의 상황이나, 아즈치 성 천주(天主) 및 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마을의 복원 영상을 전시실 내의 영상 시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즈치 성터 출토 금박 기와 (시가현 교육위원회 소장)



오다 노부나가 이미지 (소우켄지(總見寺)소장)



오다 노부나가 주인장(朱印状) (개인 소장)

기획전시실

기획전시실에서는 봄과 가을, 연 2회의 특별전이나, 그 외의 기간에는 기획전 등을 개최합니다. 봄 특별전은 오다 노부나가와 아즈치 성을 중심으로 성곽이나 전국시대에 관한 전시를, 가을 특별전은 야요이시대나 고분시대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합니다.



춘계 특별전



기획전

야외 전시물

구 미야지(宮地)가문 주택(국가중요문화재)나, 시가현 지정 문화재인 구 류겐(柳原)학교, 구 아즈치 순사 주재소 등의 문화재 건축물이 옮겨져 있습니다. 또 에도시대(1600~1867)에 만들어진, 돌을 깎아 만든 가로등이나, 이정표 등의 석조물도 야외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구 미야지(宮地) 주택



구 아즈치(安土) 순사 주재소

회랑 전시

시가현의 유적에서 발굴조사로 출토한 유물을 조사하는 모습을 회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랑



출토 유물의 정리 작업